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⑤ 이번 학기에도 '희망'을 가르치자

학생들을 위한 기도

"부처님 법을 몰랐다면 지식 위주로 가르칠 생각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인연법을 알기에 마음으로부터 기도하게 됩니다."

3월이면 대학도 개강이다. 불자인 K씨는 새 학기 시작 전이면 늘 하는 일이 있다. 강의 내용을 준비하는 반면 학생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아침마다 하는 참선시간에 학생들을 위한 기도시간을 가진다. 새 학기에 담당하게 될 학생들, 아직 얼굴도 모르지만 그들과의 인연에 감사하며 "부처님, 이 학생들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인연입니까.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모든 업장이 다 녹아 없어지길 발원드립니다. 마음의 힘을 기르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공부 잘 하게 해 주세요." 물론 학기 중에도 계속될 기도이다.

K씨가 특히 간절한 마음을 내게 된 것은 개별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많았다. 아버지가 실직한 경우들이 꽤 있고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도 생각보다 많았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아르바이트 하며 힘겹게 번 땀으로 장만하는 학비이다. 그 동안 학기 중에 학교를 그만 둔 학생도 있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려 했지만 학비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가족생계를 담당해야 하니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었다.

더군다나 올해는 대학등록금이 올라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다.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학교에 보낼까' 하고 생각하면 지각하거나 게으른 학생들을 보면 화가 난다. "교수님, 과 수석을 해도 취직이 어렵다던데요?" 하는 학생들. 졸업해도 낮은 취업률은 학생들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좌절하게 만들기 쉽다.

대학엔 형편 어려운 학생 의외로 많아

"살면서 겪을 어려움 더 큰데…훈련은 힘들수록 좋다"

마음에 입력하는대로 출력되는게 인생

인생의 훈련과정

진짜 문제는 마음 자세이다. 어려운 상황에 마음이 나약해져 공부에 집중을 못하거나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대학까지 왔지 않은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진학 자체를 엄두도 못내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잊지 않도록 말해준다. 교육받는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며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책임감까지 느껴야 하는 일이다. 앞으로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온갖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청년시절은 그것을 해결해 갈 마음의 힘과 지혜를 기르고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하고 유연한 시각, 부단한 노력을 연습하는 과정과 같다. "여러분들 닥친 상황이 어렵다고 너무 힘들어 하지 마세요. 앞으로의 인생은 몇 배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실제 그렇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누가 더 유리할까요. 어려운 상대나 힘든 코스로 연습을 많이 해본 사람과 쉬운 상대와만 겨뤄보고 편한 코스만 택한 사람. 지금 겪는 일들이 하나도 헛된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의 힘을 강하게 키우고 필수적인 실전 경험을 쌓는 훈련으로 생각합시다."

대학에서 지식 뿐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확고히 하고 지구촌 시대를 대비해 대승보살의 원력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는 되어야 하지 않은가.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스스로 마음에 힘을 더 키울 수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을 생각하는 사회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면 하고 기도한다.

마음의 입력 바꾸기

K씨가 한 학기 내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의 중요성을 외우기 쉽게 컴퓨터에 익숙한 학생들에 맞게 만든 구호입니다. "마음의 입력이 인생의 출력을 결정한다. 마음의 입력을 바꾸면 인생의 출력이 바뀐다." 수없이 따라 독송(?)시켜서 학기말 쯤 되면 저절로 외워지게 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번 학기에 마음의 입력을 바꾸게 될지 기대됩니다. 그들이 삶과 학교에서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지혜롭고 긍정적으로 마음을 바꾸고 새롭게 노력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면, 나무 석가모니불, 엎드려 감사 또 감사 올립니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부처님 감사합니다

빈자일등, 참회의 등불 (하)

이종구 경남 마산시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아쉬움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는 희망이 교차된 들뜬 분위기 탓인지, 저는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의 고삐는 차츰 느슨해져갔고 저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제 행동을 지배했습니다.

내가 살인자가 되다니…. 술을 깨고 제 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제 눈앞에 닥친 현실은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가혹한 운명의 저주가 내린 것인지, 하루아침에 살인자의 아내와 자식이 되어버린 처자식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정신은 혼미해질 따름이었습니다. 아내와 부모 형제들이 경찰서 유치장으로 황급히 달려왔지만 너무나도 큰 충격 탓에 저는 가족과의 만남조차 거부하였습니다.

그 후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 속에서 치러야 했던 세 번의 재판을 통해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 구치소에서 보낸 일 년 남짓한 세월은 저에게는 잠 못 이루는 세월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와 이혼하고 두 아이는 할머니에게 맡겨진 채 고아와 다를 바 없어졌다는 사실은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림: 문병성

무기수된 후 '마음의 먼지' 깨달아

108배 · 독경하며 참회의 나날 보내

어머니는 면회를 오실 때마다 밖의 일은 걱정 말고 몸 건강히 지내라는 말씀과 함께 제 잘못을 진심으로 부처님 앞에 참회하라는 말씀을 되풀이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뵐 때마다 믿었던 아내가 저를 등지고 떠난 사실이 떠올라 제 운명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무기징역형이 확정되고 교도소로 이송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불교 집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만 해도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 떡이나 빵 같은 공양물을 받아올 욕심에 집회를 다녔을 뿐 부처님의 가르침에 진실로 다가설 계기를 갖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불현듯 눈을 뜨게 된 것은 사소한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였습니다.

모포건조날이었습니다. 평소 성격이 깔끔한 편이어서 이부자리를 깨끗이 사용해 왔는데도 햇볕에 모포를 말렸다가 털어내자 뜻밖에도 먼지가 풀풀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의 마음속에는 한줄기 섬광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지난 날 사회에 있을 때 나름대로 올바르고 열심히 살아왔다 해도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쌓인 마음의 먼지까지는 털어 내지 못했고, 결국 그것이 저를 오늘의 이 현실로 밀어 넣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작은 깨달음을 얻고 난 후 저는 교무과에 상담을 해 불교교실에서 본격적인 수양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신입 수용자로서 당연한 것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남들이 꺼려하는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것으로 하심을 실천했습니다.

찬불가 반주를 위한 전자오르간 연습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회에 있을 때 음악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저였기에 사실상 독학으로 배워야 하는 오르간 반주가 쉽지는 않았지만 찬불가 보급을 통해 한 사람의 동료라도 더 부처님의 품안으로 다가서게 하리라는 일념으로 노력한 결과 연습을 시작한지 12년 만에 불교 법회와 찬불가 반주를 담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 손에 희생된 가련한 영가를 위하여 매일 무상게, <아미타경> <금강경> 독송 및 백팔배 참회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마음의 먼지는 집착에 의해 쌓이게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집착하는 마음에 대한 치료법으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가르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는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인 것입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인도에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가난해 가진 것이 없어 부처님께 아무것도 공양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던 여인은 구걸을 통해 얻은 한 닢의 동전으로 적은 양의 기름을 사서 부처님을 위해 등불을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등은 밤새 기름이 다 타서 새벽 무렵에는 다 꺼져버렸지만, 가난한 여인이 밝힌 등불은 꺼질 줄을 모르고 계속 타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이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려는 저의 의지는 그 옛날 가난한 인도의 여인이 한 닢의 동전과 바꾼 적은 양의 기름과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으로 밝혀든 참회의 등불은 날이 새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을 굳게 믿으며 그 등불로 인해 보다 많은 동료들이 저와 함께 부처님의 품안에 귀의할 수 있게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끝)

신행게시판

용주사 가족 템플스테이
수원 용주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이 시대 진정한 효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효행 가족 템플스테이를 마련한다. 3월 24일 열리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효행사찰 용주사의 진면목을 맛볼 수 있는 기회다. (031)239-9391

△ 신라문화원 남산 답사
신라문화원이 3월 10일 '신라인의 불상 안치법 연구'를 주제로 경주 남산 답사에 나선다. 미륵골 보리사 석조여래좌상 등을 둘러보며 신라불상의 안치법을 탐구한다. (054)741-1950

흥국사 직장인 위한 야간 불교대학 개설
고양 흥국사가 바쁜 직장인을 위해 야간 불교대학을 개설한다. 3월 8일 오후 8시 개강하는 야간 불교대학은 6월 28일까지 4개월간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된다. 수강료는 4만원. 부처님 생애와 불교교리, 불자예절, 기도, 참선법 등 다양하게 불자로서의 기본기를 다지게 할 계획이다. (02)381-7970

대각사 선불교대학 2기 개강
서울 대각사가 3월부터 7월 20일까지 제2기 선불교대학을 개강한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용성 스님의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설되는 강좌다. <금강경>을 비롯해 <선요>, 불교교리, 참선 등을 강의한다. (02)765-0972

공불련 제14차 성지순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3월 24~25일 보은 법주사로 제14차 성지순례를 떠난다. 성지순례와 더불어 제4차 임원단회의도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사업계획 및 공불련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02)739-1080